

캐나다 가족여행 시장 현황 및 시사점

(토론토지사, 2026. 6월)

1. 조사배경

- 캐나다는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연간 약 4.2천만건 이상의 높은 해외여행 수요가 있는 원거리 주요 방한 유치시장임.
- 캐나다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약 240만명이 다세대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년간 45%가량 증가한 수치임. 또한, 아동의 약 10%가 다세대 가구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어 세대 간 동거경험이 확대 중이며, 이러한 변화는 다세대 가족여행 선호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캐나다의 가족여행은 3대(조부모-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형태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화, 기대 수명 증가, 가족 중심 가치관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 이에 따라, 캐나다 가족여행 시장의 주요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고, 방한관광 유치마케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캐나다 가족여행 시장 특성

- 캐나다 가족여행 시장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두 수요가 병행적으로 구성되는 이중 구조를 특징으로 함
- 전체 캐나다인의 77%가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40% 이상이 주(州) 내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이 기본 여행수요를 형성하고 있음

<참고-2025년 연간 캐나다 거주자의 국내여행 방문 및 지출 비중>

순위	방문지역	방문비중(%)	지출비중(%)
1	온타리오	40.2	33.6
2	퀘벡	19.5	17.6
3	브리티시 콜롬비아	13.2	20.1
4	앨버타	12.4	13.2
5	서스캐처원	3.8	3.3

- 동일 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캐나다인 부모의 81%가 연간 최소 1회 이상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단위 소비자층은 국내여행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해외여행을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다층적 소비 구조를 보임
- 또한, 캐나다인 해외여행자의 46%는 가족 중심의 레저여행 형태를 선호하며, 21%는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가족여행 시장이 형성 단계를 지나 성숙된 수요 기반 위에 존재함을 시사함.

3. 계절별 주요 특징

□ 여름 (6월~8월)

- 캐나다 가족여행의 최대 성수기로, 초·중·고교의 긴 여름방학 기간과 맞물려 국내외 여행수요가 집중됨. 해변 휴양, 캠핑, 국립공원, 크루즈, 테마파크 방문 등이 주요 활동에 포함되며, 해외 장거리 여행도 활발하게 나타남.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55%가 이 시기에 휴가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 규모가 큰 여행이 중심을 이루며 다양한 활동을 한 번에 경험하려는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장기 체류와 고지출을 수반하는 특성을 보임

□ 겨울 (12월~2월)

-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피해 따뜻한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며, 카리브해 국가,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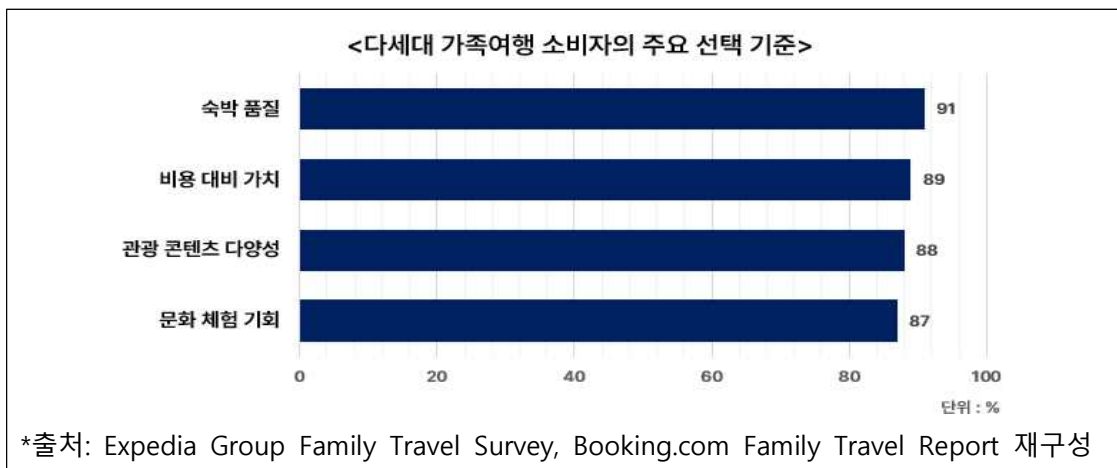
미국 플로리다 등에서 휴양과 리조트 중심의 가족여행이 대표적인 형태임. 국내여행의 경우엔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 중심의 여행이 활발하게 나타남

□ 봄·가을

- 성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행 혼잡도가 낮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시기로, 기후가 온화하여 도시관광, 문화체험, 자연경관 감상 중심의 여행이 증가하는 시기임. 단순한 관광보다 특정 계절성을 반영한 체험형 여행수요가 강화되는 것이 특징
 - (봄) 벚꽃 등 자연경관 중심의 시즌 특화 경험이 주요 동기
 - (가을) 단풍과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유산 트레일 형태의 여행 수요가 증가함
- 특히, 봄방학(March Break)은 가족단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휴가 시즌으로 꼽힘

4. 여행 목적지 선택 시 주요 기준

- 세대별 요구가 공존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 편의성과 일정 구성의 다양성이 핵심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 첫째, 숙박의 품질(91%)이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으로 나타남. 노년층과 영유아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사용 편의성, 그리고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숙박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여행 전반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함

- 둘째, 비용 대비 가치(89%) 역시 주요 선택 기준으로 작용함. 다세대 가족여행은 총 여행비용이 높은 고부가 여행 형태로 상품가격 구조의 투명성과 항공·숙박·체험이 결합된 패키지형 가치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는 소비자의 예산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여행 결정의 확신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 셋째, 다양하고 흥미로운 관광콘텐츠(88%)에 대한 요구가 높음. 젊은 세대는 체험형 액티비티, 대중문화, 역동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선호하는 반면, 중·노년층은 역사 및 문화 자원, 박물관 등 학습 중심의 경험을 선호함에 따라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한 다층적 일정 구성 가능여부가 목적지 경쟁력을 좌우함
- 넷째, 캐나다 부모의 87%는 자녀가 다양한 국제 문화와 전통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함. 이는 여행지의 문화 체험이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여행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나타냄

5. 캐나다 동부·서부 가족여행 시장 분석

- 캐나다 가족여행 시장은 지역별 경제 구조, 인구 구성, 기후 조건, 국제 이동성 및 접근성에 따라 동·서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지역별 상이한 여행 동기와 소비 패턴은 이후 여행 목적지 선택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 동부 캐나다 가족여행 시장 분석

구분	주요내용
시장특성	- 동부 캐나다(온타리오, 퀘벡 등)는 캐나다 전체인구의 상당 부분이 집중된 고밀도 도시 기반 시장으로, 도시형·문화형 소비 패턴이 강하게 나타남 - 토론토, 몬트리올과 같은 대도시는 다세대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근거리에서 상호 교류하는 비율이 높아, 가족단위

	여행 의사결정 시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음
여행 성향 및 목적	- 문화, 역사 기반 관광에 대한 선호도 높음 - 유럽 및 아시아 등 장거리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함 - 교육적 목적(learning-oriented travel) 비중이 높음 - 도시 중심 관광 및 체험형 콘텐츠 선호 - 다세대 가족여행의 경우, 노년층은 박물관 및 역사 유적지 등 정적인 문화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청년층은 쇼핑, 테마형 도시 체험 등 활동 중심의 여행 선호 경향이 공존함
소비 및 의사결정 구조	- 동부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항공 접근성이 다양하고 국제선이 집중돼 있어 장거리 여행 선택지가 풍부함 - 이에 따라 목적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공편 연결성, 가격 안정성, 문화적 친숙도 및 안전성, 교육적 가치 및 체험 요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함

○ 서부 캐나다 가족여행 시장 분석

구분	주요내용
시장특성	- 서부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등)는 광활한 산악 지형과 삼림, 호수 등 자연환경 중심의 생활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와 도시 간 거리가 넓게 분포된 공간 특성을 함께 지닌 지역임 - 밴쿠버, 캘거리 등은 자연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도시로 산, 바다, 호수 등 다양한 자연 환경과 인접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아웃도어 활동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일상 전반에 강하게 정착함
여행 성향 및 목적	- 자연경관 기반 여행수요 매우 높음 (산, 호수, 국립공원 등) - 액티비티 중심 여행 (하이킹, 스키, 캠핑 등) 선호 - 단기, 중기 여행 비중 상대적으로 높음 - 미국 서부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행수요 존재 - 다세대 가족 구조에서는 노년층도 자연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액티브형 여행 프로그램을 선호함
소비 및 의사결정 구조	- 서부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의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하며, 밴쿠버를 중심으로 아시아권 직항 노선이 발달함 - 자연 기반 활동 및 체험 요소, 이동 거리 대비 여행 효율성, 가족 전체가 참여 가능한 활동 구성, 계절성(겨울 스키 시즌, 여름 아웃도어 시즌 등)이 여행 의사결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함

○ 캐나다 동부·서부 시장 비교 분석

- 동부는 도시 중심의 문화·교육형 여행 수요가 강하며, 장거리 국제여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서부는 자연환경 기반 체험형 여행이 중심이며, 단기 및 액티브 여행 수요가 두드러짐
-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도 동부는 항공 연결성, 문화적 요소, 교육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서부는 자연 접근성, 활동 가능성, 계절성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함

6. 주요 아웃바운드 목적지 및 특징

지역	테마	주요특징
카리브해·중남미	테마형 리조트 중심	-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바하마 등 카리브해 및 중남미 지역의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는 '비용 예측가능성'과 '키즈 프렌들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가족단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항공-숙박-식음이 결합된 패키지 상품 선호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됨
유럽	문화·교육 체험형 장거리 여행	- 박물관, 역사 유적, 도시 간 철도 이동이 결합된 다도시(Multi-city) 일정이 일반적이며, 자녀 교육목적(역사·문화 체험)과 결합된 가족 여행 형태가 두드러짐 - 특히, 파리·런던·로마 등은 가족단위 장기 체류 수요가 지속 유지되는 핵심 목적지로 평가됨
북미	테마파크+자연 기반 복합 여행	- 올랜도·애너하임 등 디즈니 리조트 중심 도시 외에도 그랜드캐니언, 옐로스톤 등 국립공원을 포함한 로드트립형 가족여행이 활성화되어 있음 - 항공 접근성 및 차량 이동이 결합된 복합 여행 구조가 일반적임
아시아	근거리+체험형 도시 여행	-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서울), 대만(타이베이), 홍콩 등이 미식·애니메이션·팝컬처·도시형 체험콘텐츠 기반의 가족여행 목적지로 점차 주목받고 있음

7. 가족여행 목적지로서의 한국 경쟁력 분석

□ 원활한 이동성 제공과 우수한 인프라 보유

- 조부모와 어린 자녀가 포함된 여행에서 이동의 편의성은 핵심적인 결정 요인임.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청결도, 뛰어난 치안, 편리한 고속철도(KTX), 그리고 접근성이 우수한 대중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이동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높은 안전성과 의료 접근성

- 한국은 높은 수준의 공공 안전 체계와 치안 환경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 또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시스템과 의료 접근성이 우수하여, 고령자와 아동이 포함된 다세대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함

□ 올인원 일정 구성이 가능한 관광콘텐츠의 다양성

- 한국은 좁은 지리적 범위 내에서 전통과 현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어 세대 간 요구를 효과적으로 연결 가능함. 전통시장, 한옥마을, 세계문화유산 등 역사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한류(K-pop, K-drama), 체험형 콘텐츠, 미디어·테크 기반 관광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세대별 관심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음

8. 시사점

- 캐나다 가족여행 시장은 고소득 기반의 안정적 수요 구조와 함께 세대 간 동반여행이 일반화된 성숙시장으로, 체류형·체험형·교육형 여행수요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동부의 문화·교육 중심 장거리 여행 수요와 서부의 자연 기반 액티브 여행 수요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족 단위 동시 만족, 이동 편의성, 체험 다양성을 핵심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이러한 시장 특성과 수요 변화는 한국관광에 있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은 고밀도 관광 인프라, 높은 안전성, 세대별 콘텐츠 분화가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세대 가족여행 시장에 높은 적합성을 보유한 목적지로 평가됨
- 향후 세대별 니즈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패키지 개발, 이동·체류 효율성을 극대화 한 여행일정 설계, 관광 인프라 및 체험형·교육형 콘텐츠에 대한 정보/이용 접근성 제고 노력을 통해 가족단위 여행객 유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처:

Government of Canada

Travelweek

Travel Courier

Offshore Travel Magazine

Airbnb News

Statistics Canada 등 통계자료 사이트 자료 종합